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9주일  
2021. 08. 08. (나해) 제2280호

# 제19주보



범어대성당  
오른길  
서원만 베르나르도  
2021. 7



범어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열왕 19,4-8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에페 4,30-5,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41-51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교구 사목연구소장 | 박용욱 미카엘 신부

예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고,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세상을 떠나는 것도 사람 손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천연두 같은 감염병이 퍼지면 마마신께 비는 일이 고작이었지요. 비가 너무 안 와도 빌고, 많이 와도 빌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살피며 사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함께 견뎌내자고 이웃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재주가 점점 발전하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쏘아내고, 겨울에나 먹던 음식도 이제는 사시사철 먹습니다. 온갖 치수 방법이 개발되고 화학비료를 쓰면서 천수답도 옥답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탄생과 죽음도, 타고난 신체 조건도 인력으로 극복하는 발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뿔싸, 재주가 빼어나면 교만의 유혹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람은 모든 것이 제 잘난 덕인 줄 알고 제 편의대로 매사를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물 생명이 함께 살 곳을 마구 파헤치고, 내일은 없다는 듯이 자원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늘도 자연도 보지 못하는 단견이 되었습니다. 두 수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짧은 시야는 마구 파헤쳐 진 자연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역습을 가할 줄 몰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해도 그저 내 일이 아니면, 당장 내게 아쉽지 않으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오로지 제 잘난 덕이고, 불행을 겪는 다른 생명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눈 밖에 두는 단견입니다. 하늘도 자연도 이웃도 모두 웃자란 '자아'의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렇게 시야가 좁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배경 그 이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었고, 사람이 막상 제 힘만으로 살 수도 없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말해 뒀하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의 엘리야 예언자도 죽고 싶다고 푸념을 하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구약성경에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지요.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궤**

## 야엘, 그리고 유딧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무서운 이야기다(판관 4-5장). 전쟁이야기며 그 이야기 안에 가나안의 장수인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못이 박혀 죽어간 이야기다. 판관기를 읽다 보면 죄다 죽이고 죽는 이야기들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그 후 반성하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간청하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다른 민족들을 무찌르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들이 판관기 안에 수도 없이 반복된다. 읽기에 버겁고 무겁고 그래서 불편하다.

판관기 4장과 5장에 펼쳐지는 이야기 역시 그러하다. 끔찍한 살인이야기며 그 주인공은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었다.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느님은 드디어 움직이신다. 여예언자 드보라에게 명령하시어 바락이 가나안의 장수 시스라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다. 바락의 군대에게 패한 시스라는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치는데, 거기서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는다.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담담히 소개하는 성경의 태연함이 놀랍다. 아무런 이유 없이, 뭐가 그리 원한이 깊었기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단 말인가! 더욱이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고 이야기는 전하고 있는데 말이다(판관 4,17). 놀라운 건, 이런 여인들의 무서운 사건을 판관기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미가로 종결짓고 있다는 것이다.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판관 5,24)

굳이 드보라, 야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훑어보자면, 20여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호소에 하느님은 여지없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권능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평온해진다는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을테다. 그런데..., 굳이 전쟁과 살인의 이야기로 묘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전쟁의 장수였던 바락이나 시스라가 아닌 천막 안에 조

용히 머물던 야엘의 손을 통해 전쟁이 종결되는 이야기의 흐름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아마도 판관기의 저자는 힘없는 여인을 통해 하느님의 가장 강한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그래서 가장 힘없는 존재 안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테다. 이러한 논리는 유딧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적군의 장수의 머리를 끊어낸 여인, 유딧은 아시리아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의 의기양양함을 여인의 가냘픈 두 손으로 꺾어 누른다. 힘없는 여인의 승리를 유딧기는 이렇게 묘사한다.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그들의 영웅이 젊은이들 손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장사들이 그를 쳐 죽인 것도 아니며 키 큰 거인들이 그에게 달려든 것도 아니다. 므라리의 딸 유딧이 미모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다.”(유딧 16,5-6).

인간의 전쟁 역사는 참혹하다. 대개의 전쟁은 남자들의 패악질로 시작되고 끝맺는다. 어느 장군이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는 등, 그래서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영웅이라는 등... 다들 남자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전쟁은 참혹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전쟁의 뒤전에서 묵묵히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지켜낸 여인들의 숭고한 용맹은 거의 잊혀진다. 전쟁은 철없는 남자들의 패악질일 뿐이다.

성경 속 여인의 용맹함은 이러한 철부지 남자들을 짓밟고 승리하신 하느님의 용맹함으로 묘사된다. 하느님은 힘없는 여인을 통해 세상을 호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다는 여인들 안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끊어내고 계신다. **▶▶▶**



# 교황, 중국 폭우 희생자 위해 기도… 도쿄 올림픽, 형제애의 표징 되길

2021년 7월 25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중국 폭우로 인한 사상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실종된 것으로 밝혀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중국중앙방송은 엄청난 폭우로 인해 3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37만 6천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시는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시다. 정저우시의 도로가 강으로 변해 차량과 사람들을 격렬하게 휩쓸고, 승객들이 타고 있는 반쯤 물에 잠긴 지하철 객차의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재앙적인 홍수로 황폐해진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라인란트팔츠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날 삼중기도에서 거듭되는 재난과 그 결과에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최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를 강타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저의 친밀함과 연대를 표합니다.”

## 붕괴 위기에 처한 이허탄 댐

황하강 부근의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도시가 거의 물에 잠겼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과 21일 사이에 내린 비는 유례없는 물 폭탄으로, 연간 평균 강수량 640밀리미터에 달한다. 6천 명의 소방관, 수천 명의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구 7백만 명의 도시인 뤄양시의 이허탄 댐에 20미터 길이의 균열이 발생해 “언제라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모든 계층의 당국자들에게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 도쿄 하계 올림픽 축복

지난 7월 23일 개막한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대회를 떠올린 교황의 말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이번 도쿄 올림픽 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춰졌으며, 심지어 개회식 1주일 전에도 취소될 뻔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열리는 올림픽 대회가 건전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의 표징, 보편적 형제애의 표징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주최자들, 선수들, 이 위대한 스포츠 축제를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교황의 이 말은 같은 날 오후 3시 해시태그(#Tokyo2020)을 포함해 교황 트위터 계정 (@Pontifex)에 다시 게시됐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백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계완(金啓完) 시몬은 한양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운영하며 생활하였다. 그는 1791년 최필공 토마스로부터 천주교 서적을 얻어 본 뒤 타당한 교리에 이끌려 입교하기로 결심하고, 얼마 후에는 최창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해에 일어난 신해박해로 체포되었다가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시몬은 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앙을 회복하였다. 또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동료들과 함께 주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힘썼고, 동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교리를 연구하였다. 그는 종종 주 신부를 방문하여 성사를 받거나 그의 복사가 되어 교회 일을 도왔다.

1800년 12월경 토마스가 체포되자, 시몬은 김연이 울리안나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이어 다음 해 초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신자들의 문초 과정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이 튀어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포졸들은 사방으로 그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그는 김연이의 집을 빠져 나와 이곳저곳으로 피신해 다녔다.

그러는 동안 시몬의 늙은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또 시몬도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로 다니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이 시작되자, 김계완 시몬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온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비록 늙으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께 대한 효보다는 천주께 대한 효가 더욱 중요하므로 아버지를 돌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문초가 계속될수록 시몬의 신심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관장과 형리들은 ‘더욱 굳게 교리를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는 그를 보면서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이후 그는 형조로 압송되었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이었다.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하였다.

“저는 무식한 백성으로 천주교에 깊이 빠져 여러 해 동안 신봉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형벌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실로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김계완 시몬  
(?~ 1802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2021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THE PASSION  
**한국인 김대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개봉 : 7월 4일(일)

장소 : 유튜브 천주교 수원교구 채널

내용 : 미리내성지, 솔외성지, 백령도

등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



## 19.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⑩

“많은 남성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에 따라 남성성을 실천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과 자녀들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다른 도전 과제는 다양한 형태의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이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출산 분야의 기술적 혁명으로 출산 행위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출산이 남녀의 성관계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는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55, 56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 GM0(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식별해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 말씀의 해 안내지 30호 정답

1. × ○ ○ ×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을 보고
3. 오십이 일(52일)
4.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다, 초막절



## 미사 안내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9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8월 10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8월 11일(수)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8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8월 14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	-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1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8.31(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신청: 8월 31일부터 한 달간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남산동) 강의동 2층 |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과목당 6만원) |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동양고전 [주역 입문]	종교철학 산책	바오로서간	신약성경입문 영성신학
14:00 ~ 16:00	신학 입문 교회 음악	성경 읽는 재미	역사서 그리스도론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가톨릭서간	

※ **DoU**m 카페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구대학교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카카오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난창·이명은

###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점점 010-6481-8848

**U & I**

###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립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한국성지 167 완주

(주)미카엘여행사 Michael Tour

10.25(월)~10.28(목) 대전교구 4일

### 제주성지순례 3일

8.27(금)~8.29(일) 9.9(목)~9.12(일)  
9.24(금)~9.26(일) 10.1(금)~10.3(일)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3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길준(바오로) 신부  
2003년 8월 9일
- 구마슬(마르첼리노) 신부  
1929년 8월 11일

행사 | 모임

9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9.12(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9.2(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성서 팀공부 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대상: 청년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8.21(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수녀, (010)8682-4237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박현선 작가의 규방공예(기도보 만들기):  
8.26(목) 14:00~18:00  
김정임 작가 캘리그래피(말씀액자 만들기):

8.27(금) 14:00~16:00  
사전예약: 바오로딸, (010)6681-5185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8월 말~12월 중순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입학 및 개강: 10.18(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효령하늘집 치유기도

하느님이 좋아 함께 모여 하느님을 얘기  
하는 곳 / 하느님을 닮은 내가 되기 위한  
치유기도: 매주 수 14:00~16:00

대구가톨릭대 신입생 모집(SW융합)

모집단위: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정보학부, 우수성: SW중심  
대학사업선정(6년간 150억),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최고의 SW교육  
혜택: SW장학금, 문의: 850-2749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서준영 라파엘 신부, 650-3529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제대꽃꽂이, 수필입문, 성물도예,  
사범꽃꽂이, 칼림바, 발성법, 장구,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섬유공예, 책으로 떠나는 신앙여성,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썬벨 성서 모임 수강자 모집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명동)  
문의: (010)5726-1733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기간: 2021.8.23~2022.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대상: 15세 이상 / 문의: (02)828-3600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채용 | 안내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09:00~17:3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연 연세대 외과교수)  
신재진 (베드로) · 장주현 (비바인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리스토리결혼정보**  
대구신문 칼럼 연재자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결혼하는 비밀' 출간, 방송 언론 다수 출연  
23년 전문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인호 주신다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www.theopen-daegu.co.kr **환절! 출추게 허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속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힐스피부과**  
색소·어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공정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온창고·고추건조기  
할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